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N POWER PLANT INDUSTRY UNION(KPIU)

우 135-50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빌딩 5층 http://baljeon.nodong.net FAX 021-8159  
조직쟁의실장 정현수 ☎ 02-3456-8158(사선 021-8158) mcgiber@empal.com

문서번호 발전노조 0903- 021호 2009.03. 31.

수 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산하 본(지)부 위원장

참 조 조직국(부)장/ 사무(국)장

제 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1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

1. 노조탄압 분쇄! 임·단투 승리! 구조조정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에 여념이 없으신 동지들께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이사회 저지투쟁 후속조치에 따라 불임과 같이 투쟁명령 11호를 알려드리오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3. 특히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은 조합원이 잘 보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1호. 1부.
2.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1호에 따른 세부지침 1부(이메일 발송). 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 노 균



구조조정 분쇄 !! 단체협약 쟁취 !!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11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합니다.

1. 전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4월1일 성명서를 게시한다.
2. 전조합원은 4월1일 사창립 행사에 불참한다.
3. 전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4월1일 현수막을 부착한다.

※세부지침은 공문참조(발전노조 0903- 021호)

2009. 03. 3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 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은 조합원이 잘 보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게시하기 바랍니다.

##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1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

### 1. 4월1일 성명서 게시 건

- 성명서를 **대자보 형태**로 작성(복사)하여 조합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성명서] 날치기 통과, 이사회는 원천 무효이다.

-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정원조정 즉각 폐기하라!-

발전5개사의 정원감축을 위한 이사회가 3월 30일 새벽 '날치기 통과' 되었다. 사측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권모술수와 위장술을 동원하여 시간과 장소를 바꿔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었다. 정원관련 사항은 사전협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는 단 한 마디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치졸하고 기만적인 작태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단협 위반이며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날치기 이사회'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날 날치기 통과된 이사회는 정원 1,570명을 한꺼번에 감축하고 초과 인원은 2012년까지 모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입으로는 '일자리를 창출'을 떠벌이면서도 실제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온 이명박 정부의 기만성과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시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허깨비 경영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팔아먹고, 이명박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발전회사 이사회를 경영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군부 개발독재의 망령을 '노동자 죽이기와 강부자 독재'로 부활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행위와 꼭두각시 경영진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경영진이라는 자격으로 '살아남기'용 이사회를 결정을 절대 인정하지도 않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노동자 죽이기 정권과 꼭두각시 경영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발전노동자의 생존권과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해 나갈 것이다.

발전노조는 날치기로 처리된 이사회가 원천 무효이며 1,570명에 대한 인원감축 기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발전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력감축안을 계속 고수한다면 7천 발전노동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9년 3월 3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2. 4월1일 사창립 행사 건

-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이사회 저지투쟁 경과를 설명하고, 4월1일 창립 8주년 사창립 행사에 전조합원은 불참하도록 조직화하여 주시기 바람.
- 시간, 장소는 지부별 파악.

## 3. 4월1일 현수막 부착 건

- 부착시기 : 2009.04.01~별도 지침시까지
- 현수막 문구



. 끝.